



강진군이 올해 백운동 원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청

‘보고 느끼는 백운동 원림’ 역사와 전통 숨신다

올해 강진군 운영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인기 역사성·상징성 특화...“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강진을 대표하는 백운동 원림 속에서 즐기는 역사와 문화 체험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성전면에 위치한 백운동 원림에서 ‘2026년 생생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인 백운동 원림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백운동 원림은 자연과 인문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강진의 대표적인 전통 원림으로, 오랜 세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 온 국가유산이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군민과 방문객이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에서는 백운동 원림의 전통

과 문화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원림의 고즈넉한 경관 속에서 전통문화의 맛과 품격을 느끼며, 백운동 원림에 담긴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장소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구성으로 백운동 원림의 의미를 군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강진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백운동 원림은 강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진 뜻깊은 국가유산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백운동 원림의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진군은 백운동 원림을 비롯한 지역 내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이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이진숙 기자 sa433252@gwangnam.co.kr

해남, 아동친화 환경 조성 선도...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0개 부서 35개 사업 추진...“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 구축”

해남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아동친화 환경 조성사업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친화 환경 조성 유공 지자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

의 보호, 안전, 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

예를 안았다. 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제1차(2024~2027년) 아동친

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비전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 또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내부정책조정단을 구성·운영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10개 부서가 참여하는 3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 정책을 전 행정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239@gwangnam.co.kr

진도, 보배진미쌀 명성 지킨다

계약재배 농가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

진도군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선정된 보배진미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재배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은 농가를 대상으로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진도군청

이번 교육에는 농업인 약 140명이 참석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재배 기술을 공유했으며, 지난해 발생해 문제가 됐던 깨씨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관리, 규산질 비료 사용 방법, 밥맛을 높이는 재배 기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진도 선진농협은 지난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저온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해 올해에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의를 맡은 신서호 박사는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2년간 벼 육종을

연구하며 새청무, 강대천, 조명 등의 다양한 품종을 개발한 벼 전문가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브랜드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배 관리와 품질 균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도쌀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주민·상인 손잡고 나주읍성 상권 살린다

리빙랩 도입해 실질적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

나주읍성 상권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 10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 상권의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현안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는 ‘읍성 상권 관광 리빙랩’ 참여자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나주시 상가번영회가 실무 운영을 담당한다. 단순한 관 주도의 행에서 벗어나 상인과 주민이 주체가 돼 상권의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직접 실행해보는 참여형 모델로 기획된 점이

특징이다. 활동은 오는 7월 30일까지 나주시상공인회관에서 이뤄지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총 10차례의 집중 과정으로 꾸려진다. 재단은 초기 5회 동안 참여자들의 업종과 관심 분야에 맞춰 그룹을 편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나주읍성 상권에 필요한 핵심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간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에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기회가 부여된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재단은 여기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룹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문화재단

연은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향후 나주읍성 상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상인과 주민이 연대하는 협력 체계를 다지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며 “방문객들이 머무르는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신영식 기자 cult@gjdream.com

영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불법소각 예방·농촌환경 개선

영암군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영농폐기물 수거에 나섰다. 10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수거를 통해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영농폐기물 등 약 100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군은 영농폐기물 방치로 인한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을 줄이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수거 활동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전종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센터

GTCI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구소